

교회: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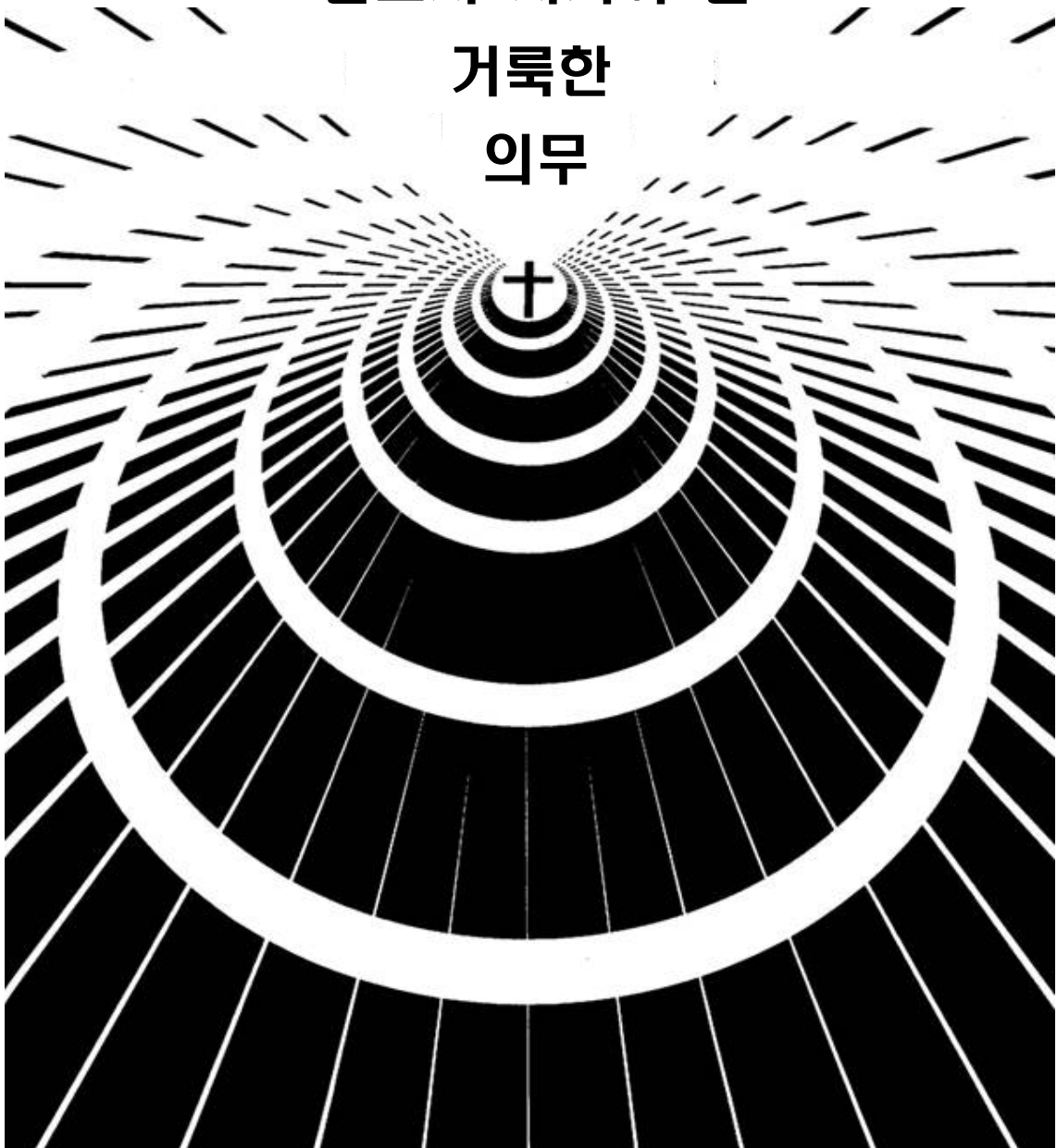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1 권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



<청장년부 공과 제 11 권>

주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

공과	제목	쪽
제131공과	성경	1
제132공과	하나님의 집	4
제133공과	주님의 이름	7
제134공과	서원	10
제135공과	성만찬과 세족례	13
제136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16
제137공과	자아	19
제138공과	교리들과 영적 지침들	22
제139공과	주의 날	25
제140공과	헌신	29
제141공과	가정 제단	32
제142공과	하나님의 능력	35
제143공과	하나님의 일	38

들어가면서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책장에 꽂힌 많은 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당신은 속어, 비속어를 사용합니까? 당신의 일상에서 말과 행동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11권의 주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1권은 거룩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13가지 의무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1권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131공과 성경

성경본문: 시편 119:1-16 ; 디모데후서 3:16 ; 요한계시록 22:19

요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시편 119:21)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인류에게 계시하신다. 그 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세기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아래 그 지시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은 고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준다. 또 미래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실 것인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못 시대와 영원무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목적들을 보여준다. 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룩한 책이기에, 고금동서의 모든 종교서적들과도 완전히 다르다.

1.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비취는 등불과 닮았다고 했다(벧후 1:19). 닮은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

2. 성경은 성경이 증거 하는 대로(벧후 12:20,21)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아래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다. 성경책이 인간의 설명이나 해석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구약의 저자들은 서로를 잘 몰랐다. 반면 신약의 저자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 신구약의 저자들의 기록들은 일치성에서 놀랄 정도로 같다. 이 저자들 몇을 들라.

4. 성경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딤후 3:16). 이를 보여주는 체험이나 성경적인 실례를 하나 들라.

5.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시 119:9)고 하신다. 여기서 “삼가다”의 뜻을 설명해 보라.

6.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준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영원한 형벌을 초래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는가?

7.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그 모든 기록들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아기의 출생과 방금 거듭난 초신자의 영적 출생 사이에서 그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비교해 보라(참조 히 5:13,14).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라. 당신은 구원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당신의 영적 성장은 당신이 그 동안 들은(먹은) 영적 양분(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는 육체는 양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 영혼도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왔던가?

해 답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혼골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 말씀에 주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듯이 바른 신앙도 죄악 세상에서 더욱 빛난다. 어두운 곳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듯 바른 말씀의 빛이 없으면 인생길을 바르게 가지 못한다.

2.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성경에서 온전히 이뤄지고 여러 세대의 여러 저자들간의 주제가 온전히 같고 성경전체의 주제가 시종일관 인류의 구속에 관한 것임을 보아서 알 수 있다. 그 성경적 증거로는 특별한 예언들과 그 성취들을 둘

수 있다. 말라기 5:2 - 마태복음 2:1, 이사야 7:14 - 마태복음 1:18, 스가랴 11:13 - 마태복음 27:6,7

3. 모세(모세오경), 다윗(많은 시편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등. 신구약성경은 서로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한 것이어서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므로 따로 읽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된다.

4.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가? 이 말씀은 구원의 필요성과 죄로부터의 해방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며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고(실예: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이 더 힘쓰고 성숙하여야 할 덕목들(벧후 1:5-10)도 가르쳐 준다..

5. “주의하여 눈여겨 보거나 가까이 주목하다”. 이 단어는 “태도의 어떤 변화”까지도 뜻한다. 곧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살게 되면 더러운 마음과 삶이 청결함을 입게 될 것이다.

6. 시편 119:15,16절을 참고하라. 하나님의 법도(말씀)를 이성적으로 묵상하면서 존중히 여기면 그대로 수용하여 귀히 여기게 될 것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면 그 길을 우리 길로 삼아 결국 선한 길임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곧 말씀을 지적으로 묵상하여 귀히 여겨 순종하면서 기뻐하여 맛을 알고 늘 기억함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길이다.

7.성경은 그런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경고한다(계 22:19).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 22:15절에서 설명해 보라.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요 12:48).

8. 각자 대답해 보라.

제132공과 하나님의 집

성경본문: 역대하 5:11-14 ; 마태복음 21:12-16

요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6:8)

기도의 집!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대해 바라시는 본래 모습이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광야교회도 들어있는 성막건축도 포함됐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인생들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예배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심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뤄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인생들의 삶 속에 기쁘게 거하실 것이다.

1.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히 10:25). 교회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교회출석의 유익 몇을 들라.

2.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다른 악덕들을 정죄하셨다. 성전에서 우리의 처세가 어떠하여야 할지를 성경에서 찾아 적으라(전 5:1,2).

3. 교회에 출석하고, 말을 삼가고 하는 이외에 무엇으로 성전을 존중할 수 있는가?(대하 29:15).

4.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자기 행위로 성전을 무시하게 되는가?

5.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나팔수들과 찬양자들은 하나 되어 참여했다. 이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임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의당 성전은 존중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임재하신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하여야 할지를 설명하라.

6. 다음 인물들은 신구약의 여섯 인물들이다. 성전과 성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유명해졌거나 혹은 그 반대의 인물들이다. 그들의 행적과 그 결과를 적으라.

나답과 아비후(레위기 10:12)

요시아 왕(열왕기하 23:1-3 ; 역대하 45:26-28)

웃시아 왕(역대하 26:16-20)

히스기야 왕(이사야 37:14,15, 33-35)

안나(누가복음 2:36-38)

어떤 면에서 이들은 우리의 모본이 되는가?

7. 다윗 왕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내놓았는가? 그가 것처럼 엄청난 돈을 드린 이유를 설명하라.

8. 다윗의 풍성한 헌금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도 자원하여 금 5천 달란트와 1만 드램, 은 1만 달란트와 구리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와 여러 가지 보석들을 바친 것이다. 백성과 다윗은 함께 크게 기뻐했다. 이는 우리에게 성전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해 답

1.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배우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친교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를 묵상해 보라.

2. 말을 성급하게 내뱉지 말라! 성전에서는 스포츠나 사업이나 세속적인 이야기 등을 삼가고 말하기 보다는 들으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3. 교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배석 주위에 여러 잡동사니나 과자 껍질 등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교회당에서 껌을 씹거나 잡지나 만화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예배 중 휴게실에 앉아 있거나 하는 따위들이다. 성

전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5.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몸차림과 예배태도와 예배 중의 관심사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들을 관찰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는가?

6.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치신 불로 죽었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백성도 동의하매 하나님은 요시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그를 구해 주셨으며 웃시아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함으로써 문둥병이 들어 죽었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기도처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며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 예수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 보았다. 이 질문의 목적은 “성전을 귀하게 여겨 바르게 사용함으로 임하는 축복들”을 생각하게 하고자 함이다. 부모님들은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7. 금 3천 달란트와 정제된 은 7천 달란트이다. 미국 달러로 400만 달러가 넘는다. 다윗이 거액을 헌금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한 때문이었다. 먼저 하나님은 그에게 부를 주셨고 다윗은 이를 다시 성전건축 헌금으로 바친 것이다.

8. 어떤 식으로 하든지 성전을 귀히 여겨야 함을 가르쳐 준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기 형편을 따라 헌금하거나 청소하거나 하는 식으로 함께 성전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과 후학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133공과 주님의 이름

성경본문: 레위기 24:10-18 ; 에스겔 36:21-23

요절: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볍게 취급치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로써 판단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은 가벼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히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아래 성구들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호들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성들에 대해서도 적으라.

창세기 17:1

출애굽기 3:14

신명기 32:8

여호수아 3:10

이사야 43:15

3. 주님의 이름을 속어나 속어에서 유래된 완곡어구 등으로 가벼이 쓰는 행위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는 행위이다. 아래 속어들을 정의하라.

지(Gee)/다안(Darn)/가쉬(Gosh)/갈리(Golly)/도간(Doggone)/헉(Heck)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요 5:18 ; 빌 2:5,6).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과 동일한 이름 몇 가지를 부여하고 있다(사 9:6). 출애굽기 20:7절의 명령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보라.

5. 삼위일체의 제 삼 위가 되시는 성령께 대해서도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주어지는 존귀와 영예를 돌리고 있다. 죄 중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막 3:22,28-30). 그 이유를 설명하라.

6.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맹세치 말고 말할 때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마 5:33-37).

7.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사람과 하나님을 동등시 하는 식의 언동도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이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이방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성경(왕하 18:28-35, 19:35-37)에서 이 왕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해 보라.

8.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가?(참조 막 12:30,31) 또 이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과도 비교해 보라.

9.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참조 신 6:4-7)

10. 맹세나 속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성호를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11. “모든 이들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롬 14:11,12 ; 빌 2:9-11). 이처럼 강제로 자백하는 이들과 지금 자원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들과의 차이를 말해 보라.

해 답

1.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삼라만상이 다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 차례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하나님의 영원성), 지극히 높으신 자(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심), 사시는 하나님(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너희 왕이니라(우리의 예배와 숭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3. 차례로 “예수님의 파생어, 댐(염병할)의 완곡어, 간(하나님)의 완곡어로 놀람이나 맹세의 표현, 간뎀(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에서 파생한 말, 지옥의 완곡어”
4.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함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함과 같다.
5.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위협적인 선언을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악귀들렸다고 비난한 때문이었다(막 3:30).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은 사람들을 책망하여 죄책을 느끼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용서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성령을 거스리고 배척한다면, 절망 뿐일 것이다.
6. 이는 법정에서처럼 공사석에서의 맹세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당치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법률은 법정에서의 무선서 증언을 허용하고 있다.
7.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학살되었고 산헤립 자신은 두 아들에게 살해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었다고 하여도 아예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이므로!
8. 사랑하는 분들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그 인격과 이름을 헤택하는 언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9. 부모가 술선수범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말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자주 입에 담거나 상대방이 하나님이 성호를 남용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등이다.
11. 전자는 영원한 지옥불로, 후자는 영영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134공과 서 원

성경본문: 신명기 23:21-23 ; 사무엘상 1:9-18, 24-28 ; 전도서 5:2,4,5

보조본문: 창세기 28:10-22

요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시편 66:13,14)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약속이다. 어려울 때 자원해서 행하는 약속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원은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무엇 무엇을 행하거나 혹은 그만두겠노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되 시급하게 갚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1. 서원과 헌신은 다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특별한 약속이 꼭 헌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달란트와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서원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서원은 언제 하게 되는가?

2.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였기에 입술만 움직였다. 제사장은 그녀를 오해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의 서원을 들어 주셨는가?

3. 한나는 얼마나 빨리 자기 서원을 갚았는가? 왜 서원 갚기를 서둘러야 했는가?

4. 오늘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할 때 주의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서원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서원이 죄가 되는 경우를 들어 보라.

5.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서원을 갚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들로 무엇이 있는가?

6. 야곱은 하나님께 “보호와 양식과 의복과 아비 집으로서의 안전한 귀환”을 구했고 이를 들어 주시면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서원했다. 이 서원으로 야곱은 무슨 유익을 얻었나?

7.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십일조를 드리겠노라”고 야곱은 서원하였다. 그가 그 서원을 갚은 증거를 찾아보라.

해 답

1.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히 필요한 환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깊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서원을 하게 된다. 이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진실하게 서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환란 날에 도와주신다.

2. 오해하는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기 사정을 설명하여 축복을 받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과 평안함을 받았다. 참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다(참조 에스더 4:1).

3.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갓았다. 서원은 빨리 갚을수록 하기가 쉽다.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원 갚기를 연기해 보라. 더욱 갚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므로 그의 충성에 보답하셨다.

4. 서원을 갚지 않거나(신 23:21)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서원을 하는 것 등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이 서원을 한 것도 죄이다.

5. 급히 서원을 하여서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와 서원을 갚을 때 오게 될 결과들을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할 때 깊이 생각한 후 하기를 바라신다(전 5:6).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심각성을 묵상하라.

6.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익이 있었다. 야곱은 그 당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의 서원 중 어떤 것들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었으나 다른 것들은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두를 다 이룰 수 있었다. 서원의 즉각적인 반응과 가치를 느꼈다.

7. 야곱은 브니엘에서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다. 이는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준다. 그는 귀환하여 벰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세웠던 그 기둥으로 돌아왔다(창 35:6-15). 그러나 그가 십일조를 드린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믿을 수 있다.

제135공과 성만찬과 세족례

성경본문: 마가복음 14:12-16, 22-25 ; 요한복음 13:4-17 ; 고린도전서 11:27-30

요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17)

성찬식에 관한 정의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것”이다.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반면 세족례는 주님이 친히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성찬예식의 일부임에도 많은 이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하나님은 옛적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일 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 절기 중 떡 먹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만찬인 주의 성만찬을 지키도록 교훈하셨다. 이 예식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을 위하신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달 제 십일에 양 떼 중에서 어린 양을 하나 따로 보 관하여 놓았다가 제 십사일에 잡아서 저녁에 불로 구어 먹었다. 그 양의 피는 그들의 집문들 위에 발랐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 우리 신자들이 오늘날 주의 성만찬 의식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라.

3. 주님의 성만찬예식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을 들라. 떡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4. 첫 번 성만찬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1:27절의 “합당치 않게”라는 단어의 뜻에서 볼 때, 이 의식에 참여할 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또 그 다음 구절의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라.

5. “주님의 몸을 분변하다”의 뜻을 설명하라.
6. 당시에 관습적으로 발을 씻던 것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의 차이를 설명하라.
7. “주님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바꾼 이유를 들라.
8. 디모데전서 5:10절에서 바울이 말한바 “칭찬할 만한 선행” 몇을 들라.
9. 마태복음 28:19,20절과 세족례와의 관계를 논하라.

해 답

1. 어린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구주를 예표한다. 당시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아래 있는 것의 유익을 들어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아래 들어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2. 이 의식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장차 신자들이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포도나무의 과실을 마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마 26:29). 위인들의 기념비나 기념물은 위인들과 그들의 행한 일을 사람에게 기억나게 한다. 성찬예식도 우리 주님과 그분의 죽으심의 위대성을 신자들에게 회상하게 한다.
3. 본 교회에서는 사도적 신앙의 전통을 따라 발효되지 아니한 떡과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즙을 의식에 사용한다. 주님의 몸은 못과 창에 찢리셨으나 그 뼈들은 꺾이지 아니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포도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떡과 포도즙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 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의 거룩한 특성 자체가 최소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떡과 포도즙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보여준

다.

4. 거듭난 자이어야 한다.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이 상징하는 주님의 피와 살을 마음에 성령으로 적용받은 영적 체험(구원)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합당한 자가 된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떡과 포도즙을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시던 그 때를 계속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한다. 거듭나서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를 살핀 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분의 희생제물 되어주심의 뜻을 확연히 깨달으면 이 의식을 통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병자는 치유 받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받을 것이다.

6. 당시 관습은 손님이 오면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나 주님의 경우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 시행되었다. 또 그 의식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에 성도는 의무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요 13:8).

7. 베드로의 마음을 돌변시킨 말이 성경(요 13:8)에 나와 있다. 찾아보고 토론하라.

8. 자녀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어줌, 환란 당하는 자들을 구제함, 모든 선한 일을 좇음.

세족례에 관한 언급은 요한복음 13장 말고는 디모데전서 5:10절이 유일하다.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린도전서 11:20-31절에서는 주님의 성찬예식과 관련하여 교회 내에 혼란이 일어났으나 세족례에 대해서는 일체의 혼란이 없었다. 또 이 의식에 대해서는 고린도교회에 일체의 어떤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만큼 주님의 지시대로 성도들이 세족례를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9. 제자들은 주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는 세족례 의식도 포함된다.

제136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본문: 요한복음 20:1-18

보조본문: 누가복음 24:1-12

요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들에 다 나온다. 이는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더라면 신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역사의 진로를 바꿔 놓았다. 부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류구속의 원천으로 세웠고 십자가의 비극을 생명의 원천이자 온 인류의 희망으로 변화시켰다.

1. 주님이 주 중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나?

2.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 하시고자 부활하신 그 날에 몇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막 16:9 ; 눅 24:13-15,34 ; 요 20:19).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목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였던가?

3. 주님의 무덤 문은 로마제국의 인장으로 인쳐져서 봉해진 것으로 로마 군인들이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가보니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 한다(눅 24:2). 어떻게 그 돌이 옮겨진 것이었나?(마 28:1,2)

4. 몇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메시지(눅 24:5-7)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으라.

6. 무덤을 보고 돌아간 여인들은 누구에게 본 광경을 증거 하였던가? 또 그 결과는?

7.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이 텅 비고 수의가 정돈된 채 놓여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20:8 ; 눅 24:12)

8. 성도가 죽으면 장래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 14:19 ; 롬 8:11)

9. 부활하신 후의 주님을 본 것으로 기록된 무리의 수효를 들라(고전 15:60).

10. 이웃이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려는가?

해 답

1. 주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번 주 중 첫째 날에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후로 주 중 첫 째날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었다. “주의 날”(주일)이란 말은 이 날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날임을 나타낸다.

2.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도마 이외의 모인 제자들 무리, 시몬 베드로. 주님이 죽으셨을 땐 절망하고 비탄에 빠졌으나 다시 사셨을 때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였다.

3. 천사. 천사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또 천사의 중요성을 묵상하라. 이는 온 인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을 방해할 어떤 권세도 땅위에나 지옥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4. 무덤이 텅 비어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두 천사가 무덤가에 나타나 있었다.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던가? 여인들은 그 후 무슨 일을 했던가?

5.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개개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롬 4:25, 5:10, 8:34).

6. 열한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증거 했으나 그들은 불신했다. 사도들이 여인들의 증거를 믿기에 실제적인 곤란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7. 요한은 믿었고 베드로는 놀라워했다. 이 말은 “의문스럽다”나 “기이하게 여기다”란 뜻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8.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하셨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고전 15:20-22).

9. 500여명. 기자가 이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세세하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 할 것이다.

10. 먼저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하며 확신하였다. 또한 이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지금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 받는 증거들이 일어난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오!” 라고 증거 한다며 금상첨화이다.

제137공과 자 아

성경본문: 창세기 1:26 ; 로마서 8:9 ; 고린도전서 6:19,20 ; 고린도후서 6:14-18 ; 에베소서 2:19-22

요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고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겔 18:4).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 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1.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라.
2.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이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8,10). 신약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명한 죄수를 들라.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 몇도 거론하라.
3. 신자가 주님을 섬길 때 당초 설정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도 있다. 베드로는 다 배신하여도 자기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사전에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다. 나중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을 때 주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4. 열두 정탐군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열 명은 “그 땅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 성들은 성벽들로 둘러쳐 있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보고했다(민 14:9).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5.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가 가져왔을 때 다윗은 이같이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니이까?”(삼하 7:18). 다윗은 청년기 때나 왕이 된 이후에나 항상 겸손을 유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다른 성경증거를 몇을 들라(삼상 24:14 ; 시 34:6, 40:17).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들라(약 4:6).

6.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극히 장려하게 지어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짓고자” 했다(대상 22:5). 이를 위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물질과 소유를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 전은 모든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처소가 될 것이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전은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또 솔로몬 성전과 오늘날의 하나님의 전과의 유사성을 설명하라.

7.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대하 7:16). 신약시대의 성전인 신자의 심령도 역시 그러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해 답

1.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계된 존재이다. 그러나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회개하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곧 사람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마음을 드리면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 헌신하면 에덴에서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거룩의 체험을 주신다.

2.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간음하다 잡힌 여자, 바울... 당시 신자들은 사울(바울)처럼 기독교를 극악하게 핍박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3. 변함없이 사람의 슬프디 슬픈 눈길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에게 실망하고 부끄러웠으며 슬펐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에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했다. 이미 그전에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그에게 이르셨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약속하신

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라.

4. 주님만을 바라보면 영적 전망을 얻는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열 정탐군들과 그들의 말에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부정적인 환경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준비와 계획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만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성경은 “갈렙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더라”(신 1:36)고 말한다.

5.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썸”으로 여겼다. 그는 왕이 된 후 많은 물질적 부요를 얻었음에도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여겼다. 이런 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행 13:22 ; 삼상 13:14).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고(눅 18:3),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사 57:1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마 6:8).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6. 거듭난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솔로몬 성전이 각종 보석들과 귀금속들로 장식되고 세공 등으로 치장하여 뛰어나게 아름다웠듯이 거듭난 자의 마음도 아름답기 그지 없다. 단지 외적인 단장은 아니고 “오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된다(벧전 3:3,4).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것처럼 물질적인 건축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나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의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이들의 변화된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성전에 희생제단이 있었듯이 거듭난 신자도 산제사와 헌신을 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7. 음란, 간음, 더러운 악습들(술, 담배, 마약, 도박 등), 살인, 시기, 우상숭배 등으로 더럽혀 진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갈 5:19-21). 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계 21:8)고 하였다. 이런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든지 내(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제138공과 교리들과 영적 지침들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0:23,24, 31-33 ; 디모데전서 4:13-16 ; 디모데후서 3:16,17 ; 디모데후서 4:1-5 ; 요한일서 2:15-17

요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성경은 성경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진리(교)들을 제공한다. 또한 성경은 신자가 개인과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친다. 교회의 제자훈련의 기초로서, 그리고 교회의 제반 지침들을 세우는 데 근본이 되는 진리인 교리들을 신자들에게 가르칠 권위와 책임을 진 자가 바로 목회자이다. 신자와 교회가 이러한 교리들을 굳게 붙잡을 때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신자끼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

1. “교리”의 한 가지 정의는 “가르쳐지거나 옹호되는 특별한 원리”이다. 성경의 교리들과 관련된 우리의 책임을 말하라(요 7:17).

2. 성경은 신자 개인과 교회에 목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리를 가르치도록 강조한다(딤후 4:1,2). 이 성구들의 뜻과 중요성을 설명하라.

3. 히브리서 13:17절에서는 신자가 목회자에게 취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를 말하라.

4. 흔히 교리는 복음의 뼈대라고 한다. 왜냐하면 교리가 신앙의 골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음 성구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말하라.

마가복음 1:15절과 사도행전 20:21

요한복음 1:12,12절과 로마서 5:1

요한복음 17:15-17절과 히브리서 12:14절
누가복음 24:29절과 사도행전 2:4절
야고보서 5:14-16절
요한복음 14: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16-18절

5.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영감을 부어 넣으셨고 이 말씀에서 교리가 생겨난다. 이 교리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6. 요한일서 2:15-17절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7. 오늘의 주 요절 중 “굳게 서서 ... 유전을 지키라”의 뜻을 설명하라.

해 답

1. 신자는 교리를 알아야 한다. 각부 주일학교 성경공부시간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나 혹은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교리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2.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경고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겠노라”고 하셨다(겔 3:18,19, 33:1-9)

3. 신자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상의 게임이나 교통에도 법칙이 있듯 영적 삶에도 규칙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것이다.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도들과 친교가 불완전해질 수 있고, 교회 직분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든지 할 것이다.

4. 차례로 “회개, 칭의 성결, 성령의 침례, 신유, 교회의 휴거”

5. 신자가 온전해진다(딤후 3:16,17).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오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한다.

6.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릴 수 없는 죄 되고 속된 마음이다. 여기서 죄 되고 속된 것들을 묵상해보라.

7. 순전한 복음과 온전한 교리들과 가르침들을 굳게 유지하라.

제139공과 주의 날

성경본문: 마태복음 12:1-13, 이사야 58:13,14

요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사도행전 20:7)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 주간 중 하루를 쉬는 기본원리는 창조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아주 오래 된 것이다. 그것은 모세율법보다도 앞섰다. 하나님은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날과 관련하여서 따라야 할 특별한 규칙들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가적으로 그들의 안식일(토요일)을 안식하는 날로서 지킬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하나로서 기억한다(출 31:16).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신약시대의 “주의 날”과 혼동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첫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때에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안식일인 주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이 우리 주님께 존귀를 돌리고자 안식하는 날로서 구별해서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세상 염려들을 버리고 주의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거둔다.

1. 하나님은 이레째 날에 그의 모든 창조의 일들을 쉬셨다. “안식하다”란 말은 “일손을 놓고 쉬다”란 뜻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라(창 2:2,3).

2.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무엇을 하도록 하라 하셨는가?(출 20:8-11) 또 율법시대에 이 날에 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출 35:2)

3.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 불평하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고 응수하셨다. 이 구절의 뜻을 말하라.

4. 율법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것도 안식 후 이튿날에 드려야 했다(레 23:9-12).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이튿날” 곧 한 주의 첫날에 일어났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한다(고전 15:20). 신약시대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라.

5. 다음 성구들은 일요일에 일어난 중요 사건들을 묘사한다. 그것들을 찾아 적으라.

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24:13
누가복음 24:36
요한복음 20:26
사도행전 2:1
사도행전 20:7
요한계시록 1:10

6. 주의 날은 모세율법 아래서의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구별된다. 엄연히 다른 날일뿐더러 구약성경시대의 규례들 중 어느 것도 주의 날로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첫 번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의 신자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여 주고자 모였을 때(행 15:1,2, 19-29),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롬 14:1-6 ; 갈 4:9-11 ; 골 2:16,17).

7. “주의 날”은 소유형태로 “주께 속해있음”이란 뜻이다. 옛 언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관계가 있었듯이 새 언약아래에서의 주의 날은 우리 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구원)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요일은 한 주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며 헌금하고자 이 날을 헌신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한다(고전 16:1,2 ; 행 20:7). 오늘날의 신자들이 주의 날을 존경하는 표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라.

8. 하나님은 안식일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사 58:13,14).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또한 주의 날을 존중할 때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9.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적인 짐을 제거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인 주의 날을 지킴으로 오는 축복을 제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날인지도 모른 채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날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고 동료 신자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과연 한 주간 중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고 있는가? 각자 묵상하여 보기 바란다.

해답

1. 그 날을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 함이다. 세상 창조를 끝내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일로부터 떨어져서 안식해야 한다. 그보다는 “주 안에서 안식함”이 더욱 필요하다.

2.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기억할 것이요 세상일로부터 쉬라!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3.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는 날로서 정하신 분이라고 말한다(요 1:1-3). 또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막 2:27,27). 그렇다고 그 말이 안식일이 불필요함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주님은 생전에 안식일을 존중하셨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이미 그전에 주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고 왔노라”고 하셨다(마 5:17).

4. 부활은 안식일 후인 이튿날에 일어났다. 여기에 일요일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키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곡물의 첫 열매제물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5. 차례로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눅 24:13,31,33,36 참조). 이레 후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도마도 참석). 오순절 날에 성령의 침례가 내림(제 칠 안식일 까지 합 오십일을 계수하여 레 23:16). 제자들이 떡을 떼려고 모임. 요한 사도에게 계시가 내리기 시작.”

6. 주의 날에 관해 성경이 어떤 공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유대교의 안식일과 절기들을 계속 지켰고 또 어떤 신자들은 날들에 관해서는 구별을 두지 않았다. 바울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형제들을 판단해서 안된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으로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갈 3:23-26). 율법의 문자는 율법과 복음의 본질인 사랑의 더 위대한 정신으로 대체된 것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6,17)

7. 일상의 책무들로부터 벗어남이 필요하다.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다(막 2:27,28).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휴식이 필요하다. 온

성도들이 이 날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 감미로운 평안을 느낀다. 찬양과 예배 찬송가들은 기쁨을 가져다준다. 이 날에 또한 전도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날에 세상 일로 분주하다면 우리는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8.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성일이라”고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했다. 신약시대 신자들이 비록 율법에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니나 초대교회나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예에서 보듯이 주의 날에 주님을 존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축복들이 임했다.

9. 각자 해 보라.

제140공과 헌 신

성경본문: 사무엘하 24:17-25, 로마서 12:1,2

요절: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사무엘하 24:24)

거룩하고 헌신된 삶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의 영적 성장에 본질이 되며, 삶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오는 것은 세상에 없다. 헌신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신령한 복들, 곧 구원과 성결과 성령의 침례와 신유와 기타 복들로 이르는 첩경이다. 지나간 과거의 여러 해 동안의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려야 한다.

1. 구약시대에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종종 사용된 것들을 들라(출 29:21,22).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런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를 들라.

2. 다윗이 타작마당과 황소들의 값을 치르려고 한 이유를 들라. 그가 아라우나의 제의대로 대가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는가?

3.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결과를 적으라.

4. 욥이 그의 삶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욥 1:1,2)

5.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헌신 가운데로 부르셨을 적에 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창 22:2,3,9-13)

6. 오늘날 신자가 헌신한다면 어떤 유형의 헌신을 하게 되는가?

7.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을 적으라 (행 9:6). 사울이 그때 보인 반응과 그가 후에 성공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의 관계를 말하라.

8. 청년 사울은 주님께 오기 전에 큰 야망과 소망을 품었었다. 당대 최고 지성이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모세율법을 배웠기에 장래 유대 관원이 되거나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안 후 사울은 이 모든 세상 야망들을 다 버렸다. 이후 사도로서 “바울”로 개명한 그는 하나님께 깊은 헌신을 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빌 3:7,8)

9.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부께 취하신 시종여일 하셨던 태도를 들라(마 26:39 ; 요 4:34).

해 답

1. 동물과 새를 잡아 죽여 제사하였다. 속죄 목적 뿐 아니라 헌신용으로도 그리하였다. 진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면 우리를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 거듭나면 죄를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더욱 깊은 영적 체험들로 나아가는 길은 헌신이다.

2. 남의 것은 조금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헌신이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림이다. 어떤 이는 장래와 희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는 의미에서는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날마다 헌신을 계속해야 한다.

3.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이스라엘로부터 물러가게 하셨다. 다윗의 고뇌에 찬 기도는 갓 선지자의 지도를 가져 왔고, 그의 지시대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다.

4.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적에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노라”고 했다. 이처럼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은 귀한 것이다. 이 헌신을 통하여 옳은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옳의 인내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5.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헌신을 하는지의 여부를 달아 보신다. 물론 그전에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의 헌신은 불완전한 것이다.

6.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롬 12:1). 거듭난 신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7.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행 9:6. 한글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으나 흠정역 영어성경에는 이 말이 나온다. 역자 주) 사울은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삶을 헌신하고 이후에 주님이 자기더러 하라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을 성공적으로 섬기려면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자원하여 해야 한다.

8.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는 그의 고백에서! 그는 죽기까지 이 고백대로 살다 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딤후 4:7).

9.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과 온전한 기쁨은 항시 천부의 뜻을 행함이셨다.

제141공과 가정제단

성경본문: 신명기 6:1-15 ; 디모데후서 1:5,3:15

요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어릴 적부터 종교적으로 체계 있게 교훈하며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자녀 교육상 꼭 필요하다. 부모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함께 읽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모본을 보임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1. 구약성경에는 가정제단들의 몇 실례가 있다. 아래 성구들을 참조하여 빈 칸을 적고 또 누구에 대한 언급인지를 말하라.

창세기 18:19 -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수아 24:15 - “오직 나와 내 집은.....”

2. 가정제단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일을 읊은 얼마나 자주 했던가? 또 왜 그렇게 했던가?(욥 1:5)

3.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유월절을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쳐서 불사르지 않도록 하라” 하셨다. 육상 경주의 릴레이 경주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는 것의 유사성을 설명하라.

4.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을 때의 상급은 무엇인가?(잠 22:6) 또 어떤 이는 어릴 적에 바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장성해서 그 교훈을 떠나는 이유를 들라.

5. 가정 제단은 단지 몇 분간의 묵상이 아니다. 부모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말씀대로 열매 맺는 가정예배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가정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6. 자녀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사 28:9) 어린아이의 가장 이른 생애 초기에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몇을 들라.

7.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교회의 목회자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있는가?

8. 가정예배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기도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의견들을 토론했다.

9. 미국의 경우, 어린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TV 앞에서만 18,000시간을 보낸다. 매일 2시간 45분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얼마의 시간을 드리며 사는가?

해 답

1.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이 성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성구는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의의 모본이 됨으로써 받은 유익들에 대해 말해보라.

2. 항상 하였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가한 후에 그리하지 않았다. 순전하고 온전했던 욕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 했다.

3. 달리는 주자는 뒷사람에게 baton을 정확히 바로 넘겨주어야 한다. 부모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전해 주어야 한다. baton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적 책임에 대한 그 실패의 결과들은 비참할 것이다.

4.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고 하였다. 경건훈련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구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의 영향은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5. 언제나 예수님 제일주의 사상을 가지고 경건한 대화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젖을 떼면 바로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주일학교의 찬양을 들려주거나 따라 부르게 하거나 성경책을 만져 보거나 쳐다보게 하는 것 등이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

7. 본질적인 책임은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담당자들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장성해서도 마귀 유혹이나 시험에 의연히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8. 설교나 이야기를 자녀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거나 사진이나 기타 실물들을 보여주거나(시청각적 예배), 친교적인 따뜻한 분위기의 기도시간을 가지는 것 등이다.

9. 각자 대답하라.

제142공과 하나님의 능력

성경본문: 시편 139:1-13 ; 시편 135:5,6 ; 마가복음 4:35-41 ; 히브리서 4:13 ; 요한일서 3:20

요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역대상 29:11)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은 그의 지으신 피조물들에 나타난다. 우주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도 보시며 아신다.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늘에 거하시나 또한 그의 영으로 신자들 각 심령 속에 거하신다.

1. 복음서에 나오는 밤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입증되고 있는가?(막 4:35-41).

2. 예수님은 바다의 폭풍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물리적인 폭풍과 영적인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비교하여 보라.

3.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제자들의 울부짖음 속에는 신앙의 요소가 보인다. 이 외의 다른 요소도 있는데 써보라(참조:마 8:26, 눅 8:25)

4.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활용해야 한다(마 21:22).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는가?

5.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되는 몇 가지 특별한 면들을 열거하여 보라.

6. 시편 139:7절은 “내가 주 앞에서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이까?”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고 하겠는가?

7.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히 1:2,3).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통제하시는가?

8.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는 길을 적으라.

해 답

1.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시다. “번 에드먼드” 형제의 간증(영문판 소망의 빛 1990년도 11-12월 판 참조)을 보면, 어지러운 우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농장 울타리 바로 앞에서 기적적으로 멈추었는지를 알 수 있다.

2.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은 그치고 바다가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 바람은 서서히 물러 간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물러갔다. 혼란한 심령에 주님이 고요하라 명하시면 그 즉시로 평강이 와서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3.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주께로 가면서 믿음을 보였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힐문하셨다. 곧 그들은 그 가지고 있던 믿음을 위기상황에서 활용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폭풍이 오자 믿음도 날아가 버리고 공포가 그들을 삼킨 것이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능력의 결과를 즉시 보게 되었다. 지금도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라. 그 결과를 즉시로 보게 될 것이다.

4. 성경공부(롬 10:17)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거나(고후 5:7, 약 2:17),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막 9:24, 엡 6:16)등을 통해 가능하다.

5.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흠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동기와 욕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항상 주의함이 중요하다(삼상 16:7, 요 2:25).

6.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이 그 같은 질문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의 놀라움을 생각하게 하려고 함이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파괴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어서 각 심령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물론 회개를 촉구할 목적에서이다!

7. 온전히 통제하신다.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든지, 혹은 반역을 택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든지 한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에 처하신다.

8.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더욱 깊이 헌신하고 많은 기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 안에서 이 둘을 항시 행하면 된다.

제143공과 하나님의 일

성경본문: 마태복음 25:14-30 ; 베드로전서 4:10,11

요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28)

금번 공과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문을 남기라고 명령했다. “달란트를 선용하다”라는 표현은 이 “달란트”라는 말의 비유적인 용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비유 중에 나오는 금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재능)와의 사이의 유사점을 금번 공과에서 살펴보겠다. 자기네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으나 신실치 못하게 부주의하게 쓴 자들은 그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잃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손실도 당한 것을 살펴보겠다.

1. 본 비유 가운데는 많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각 종들은 몇 달란트 씩 받았는가?

그들이 그같이 차이 나게 받은 이유는?

그들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그 달란트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은 각자 얼마의 이문을 남겼던가?

2. 비록 이 비유가 돈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여도 그것이 우리 신자의 영적 체험과 관련해 볼 때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3.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당신의 달란트(재능)를 적으라.

4. 비유의 종들은 환전상들을 상대로 돈놀이나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늘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달란트(돈)를 늘렸던가?

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더 개선시킬 수가 있는가? 그 실례를 들라.

6. 당신이 사무실 지배인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 일군 하나를 채용하려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겠는가? 이 기준을 영적 달란트에도 어떤 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
7.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상급을 받는가? 우리 달란트를 사용치 않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8. 하나님의 일에 자기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9. 신자는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가 “헌신하며 성실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이 이롭게 되는가?

해 답

1. 차례로 “다섯, 둘, 한 달란트 씩 받았다.”, “저마다 능력대로 받았다.” “주인으로부터 받았다.” 비유에는 직접적으로 그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 종들은 주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마 25:24). 따라서 추정해 보건대, 주인이 바라는 바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처음 두 종은 원금의 두 배를 나머지는 원금 그대로를 바쳤다.
2. 종들은 무언가를 받았다. 신자도 영적으로 무언가 한 달란트는 받는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 종들은 주인을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선택했다. 신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인은 종들이 그 받은 것으로 더 많이 늘리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들의 근면을 통해 달란트는 늘었다! 하나님도 우리 신자가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많이 늘리고 더 효력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신다.
3. 음악적 재능,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간증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대화상대를 해주거나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며 병자를 심방하는 것 등이다.

4. 그들은 자기네 돈이 주인의 것인 줄 알았기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부지런히 기민하게 움직여 돈을 늘렸을 것이다. 아마도 시장에서 장사를 했을 것이다.

5.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힘들게 노력하고 자기훈련을 힘쓰며 실천해야 한다. 음악도가 좋은 선생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습하여야 발전하는 것과 같다.

6. 일군의 능력, 근면성, 신뢰성, 성실성 등. 영적 달란트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며 그러한 기준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7.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하고 근면하며, 기만하게 충성하여야 상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8.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독하는 지도자들로부터 그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합격점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사명과 관련해서)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달란트와 관련이 있다.

9.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십일조와 헌금으로써 주의 일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자가 교회 일에 발 벗고 나서면 초신자들에게 좋은 모본과 영감을 제공하고 이에 주님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고 격려 받는다. 또 교회를 섬기는 신자 개인의 신앙도 자라난다.